

2010년 3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조사결과

3월 CBSI 전월대비 5.9p 하락, 13개월내 최저치 기록

- 전고점인 작년 7월 이후 하락국면 지속,
작년 SOC 예산증액 효과 거의 소진 -

- 3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대비 5.9p 하락한 71.7을 기록해전고점인 작년 7월(99.3)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또한, 작년 2월(50.0 기록) 이후 13개월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 3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대비 5.9p 하락한 71.7을 기록함. 이로써 지수는 전고점인 작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작년 7월의 99.3 대비 27.6p나 하락함.
- 작년 7월에 정부 SOC예산 급증 및 조기집행 영향으로 지수가 6년 7개월내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로 지수가 소폭 등락을 반복하면서 3월까지 하락국면을 지속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3월 지수는 작년 2월(50.0 기록) 이후 13개월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해 작년 정부의 SOC 예산 증가로 인한 지수상승 효과가 많이 사라진 것으로 판단됨.
- 더욱이 통상 3월에는 건설 비수기가 끝나 지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3월 지수가 하락한 것은 그만큼 건설기업의 체감경기가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작년 대비 재정효과가 많이 줄어든 가운데 최근 수도권 미분양 증가, 일부 주택업체 위기 등 민간 건설경기 부진이 더해져 나타난 결과로 해석됨.
- 다만, 4월 전망치가 85.5를 기록해 3월 보다 13.8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이는 건설 비수기가 완전히 지나감과 동시에 4월 이후 공공 발주물량이 좀더 본격화될 것을 기대한 때문으로 판단됨.
- 그러나, 작년 4/4분기~올 1월 급증한 수도권 분양물량으로 인해 수도권 미분양수가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일부 주택건설업체의 위기도 단기간내 해결되기 어려워 지수 상승은 소폭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 중견업체 지수가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 지수는 상승했음. 특히 대형업체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해 지수 하락을 주도함.
 - 대형업체 지수는 전월대비 14.3p 하락한 78.6을 기록해 3월 지수 하락을 주도했는데, 작년 12월 100.0을 기록한 이후 3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작년 2월(58.3)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 중견업체 지수 역시 전월대비 9.6p 하락한 70.4를 기록했는데, 작년 3월(66.7)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 반면, 중소기업 지수는 전월대비 8.1p 상승한 65.0을 기록했는데, 이는 대형, 중견업체에 비해 최근 상황이 어려운 주택사업 비중이 매우 낮고, 3월 들어 공공 발주물량이 소폭 늘어난 영향으로 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판단됨.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 자재부문 수급이 아직 양호한 가운데, 자재비 및 자금조달 상황이 다소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력 및 자재수급 지수는 각각 107.6, 97.5를 기록하여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건비 및 자재비 지수는 각각 96.9, 82.6을 기록하여 최근 철강재 가격 상승세 등의 영향으로 자재비 상황이 다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공사대금수급 및 자금조달 지수는 각각 전월대비 3.1p, 3.0p 하락한 91.9, 85.3을 기록해 자금조달 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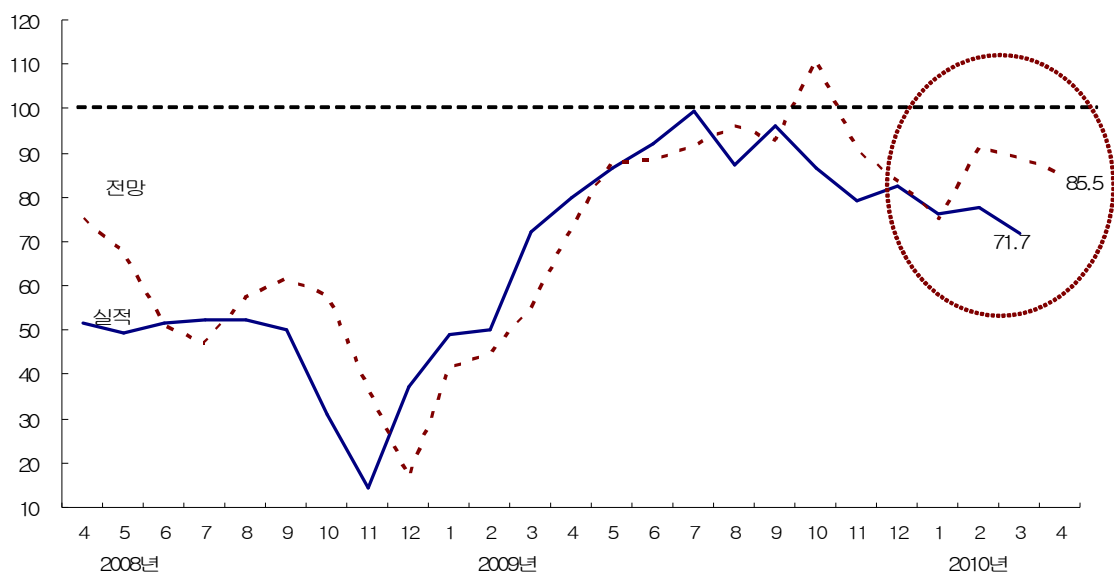
※ 본 보도자료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2010년 3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3월 CBSI 전월대비 5.9p 하락, 13개월내 최저치 기록

- 3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대비 5.9p 하락한 71.7을 기록해전고점인 작년 7월(99.3)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또한, 작년 2월(50.0 기록) 이후 13개월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 3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대비 5.9p 하락한 71.7을 기록함. 이로써 지수는 전고점인 작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작년 7월의 99.3 대비 27.6p나 하락함.
- 작년 7월에 정부 SOC 예산 급증 및 조기집행 영향으로 지수가 6년 7개월내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로 지수가 소폭 등락을 반복하면서 3월까지 하락국면을 지속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3월 지수는 작년 2월(50.0 기록) 이후 13개월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해 작년 정부의 SOC 예산 증가로 인한 지수상승 효과가 많이 사라진 것으로 판단됨.

< 경기종합 BSI 추이 >



- 더욱이 통상 3월에는 건설 비수기가 끝나 지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3월 지수가 하락한 것은 그만큼 건설기업의 체감경기가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작년 대비 재정효과가 많이 줄어들은 가운데 최근 수도권 미분양 증가, 일부 주택업체 위기 등 민간 건설경기 부진이 더해져 나타난 결과로 해석됨.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 중견업체 지수가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 지수는 상승했는데, 특히 대형업체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해 지수 하락을 주도함.

< 규모별·지역별 경기종합 BSI 추이 >

| 구 분 | | 2009년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2010년 1월 | 2월 | 3월 | | 4월 전망 |
|-----|----|-------------|------|-------|-------|-------|-------|------|-------|-------------|------|------|-----------|----------|
| | | | | | | | | | | | | 실적 | 전월 전망치 | |
| 총 합 | | 86.6 | 92.2 | 99.3 | 87.2 | 96.1 | 86.4 | 79.3 | 82.5 | 76.3 | 77.6 | 71.7 | 88.9 | 85.5 |
| 규모별 | 대형 | 100.0 | 92.3 | 114.3 | 107.1 | 114.3 | 100.0 | 84.6 | 100.0 | 93.3 | 92.9 | 78.6 | 100.0 | 92.9 |
| | 중견 | 78.1 | 97.2 | 105.9 | 100.0 | 110.0 | 103.4 | 88.5 | 77.8 | 76.9 | 80.0 | 70.4 | 84.0 | 88.9 |
| | 중소 | 80.5 | 86.4 | 74.2 | 49.3 | 59.0 | 50.9 | 62.7 | 67.2 | 55.6 | 56.9 | 65.0 | 81.4 | 72.9 |
| 지역별 | 서울 | 97.5 | 93.9 | 114.6 | 102.7 | 103.0 | 102.2 | 85.7 | 90.6 | 85.9 | 90.1 | 73.8 | 94.4 | 90.7 |
| | 지방 | 66.5 | 83.6 | 69.8 | 64.2 | 71.1 | 64.6 | 69.5 | 70.2 | 61.2 | 59.6 | 68.4 | 80.9 | 77.5 |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대형업체 지수는 전월대비 14.3p 하락한 78.6을 기록해 3월 지수 하락을 주도했는데, 작년 12월 100.0을 기록한 이후 3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작년 2월(58.3)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 중견업체 지수 역시 전월대비 9.6p 하락한 70.4를 기록했는데, 작년 3월(66.7)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 반면, 중소기업 지수는 전월대비 8.1p 상승한 65.0을 기록했는데, 이는 대형, 중견업체에 비해 최근 상황이 어려운 주택사업 비중이 매우 낮고, 3월 들어 공공발주물량이 다소 늘어나는 등 계절적 요인에 의해 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판단됨.

◦ 지역별로는 서울업체가 전월대비 16.3p 감소한 73.8을 기록하였으며, 지방업체는 8.8p 증가한 68.4를 기록함.

- 서울업체 지수는 지난 2009년 11월(85.7)부터 2010년 2월까지 85선과 90선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결국 지수가 70선인 73.8까지 떨어짐. 이는 작년 3월 78.0을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최근 악화되고 있는 건설 및 부동산 시장 상황을 대변함.
 - 한편 지방업체 지수는 2009년 12월 70.2를 기록한 이후 2개월 연속 지수가 하락 한데 따른 통계적 반등으로 전년대비 8.8p 증가한 68.4를 기록함.
 - 비록 지방업체의 지수가 전월대비 소폭 증가하긴 했으나 여전히 지수가 60선에 머물러 지방업체의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4월 건설경기 전망 지수는 85.5를 기록함. 3월 보다 13.8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건설 비수기가 완전히 지나감과 동시에 4월 이후 공공 발주물량이 좀더 본격화될 것을 기대한 때문으로 판단됨.
- 업체 규모별로 전망 지수를 살펴보면 대형업체와 중견업체는 각각 92.9와 88.9로 전망하였으며, 중소기업체는 72.9로 전망함.
 - 지역별로 서울업체는 지수가 3월보다 16.9p 증가한 90.7로 전망하였으며, 지방업체는 9.1p 증가한 77.5로 전망함.
 - 그러나, 작년 4/4분기부터 올해 1월까지 급증한 수도권 분양물량으로 인해 수도권 미분양 수가 재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일부 주택건설업체의 위기도 단기간 내 해결되기 어려워 지수 상승 폭은 소폭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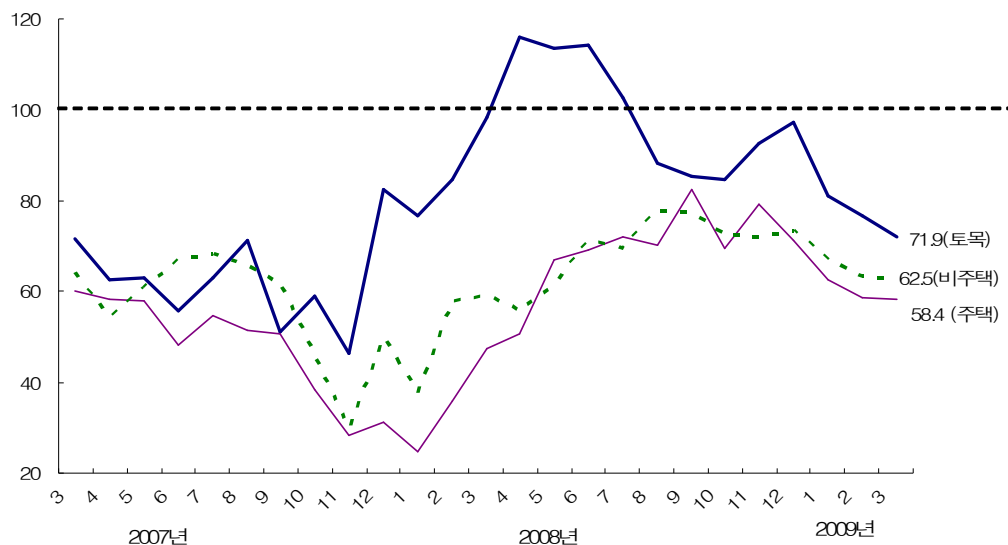
공사물량지수, 전월대비 **1.3p** 하락한 **76.1** 기록

- 공사물량지수는 전월대비 1.3p 감소한 76.1을 기록함. 모든 공종에서 지수가 전월보다 소폭(0.2~5.0p) 감소했는데, 이중 토목물량의 감소(-5.0p)가 전체물량지수의 감소를 주도함.
- 토목 물량지수는 공공 공사 발주 감소로 3달 연속 지수가 하락, 전월대비 5.0p 하락한 71.9를 기록함.
 - 주택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0.2p 하락한 58.4를 기록함.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70~80선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해오다가 지난 11월 이후 지수가 4개월 연속 하

락하면서 결국 50선에 머물렀다, 최근 주택경기가 다시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함.

- 비주택 물량지수 역시 전월보다 0.6p 감소한 62.5를 기록함.
- 토목물량의 감소(-5.0p)가 다른 공종(-0.2~-0.6p)보다 큰 것은 토목물량에 대한 의존도가 타 공종보다 높았기 때문이며, 토목공사의 감소가 결과적으로 전체 공사물량의 감소를 주도한 것으로 판단됨.

< 공종별 공사물량 BSI 추이 >



- 대·중·소 업체 규모별로 대형업체는 전월과 같은 85.7을 기록했으며, 중견업체는 전월보다 7.2p 감소한 80.8을, 중소기업체는 전월보다 8.7p 상승한 59.6을 기록함. 전월대비 중견업체의 물량감소가 가장 컸으며, 중소기업체의 경우 물량상황이 소폭 개선되긴 했으나 여전히 지수가 50선에 머물러 부진한 모습임.
- 대형업체의 물량지수는 전월과 같은 85.7을 기록함. 공종별로 모두 71.4를 기록하였는데 토목과 비주택은 각각 전월보다 7.2p씩 감소한 반면, 주택은 전월보다 7.1p 상승함.
- 중견업체의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소폭 7.2p 감소한 80.8을 기록함. 비주택(73.1)물량지수가 전월보다 3.5p 증가했으나, 토목(76.0)과 주택(65.4) 물량지수가 각각 전월대비 11.9p, 1.3p 감소함.
- 중소기업체의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8.7p 증가한 59.6을 기록함. 공종별로 주택물량이 전월대비 7.6p 감소한 35.3로 부진했으나, 토목(67.8)과 비주택(40.0)물량상황이 전월보다 소폭(각각 +4.5p, +2.3p) 개선됨.

< 공사물량 BSI >

| 구 분 | | 종합 | 규 모 | | | 지 역 별 | |
|-----|----|------|------|------|------|-------|------|
| | | | 대형 | 중건 | 중소 | 서울 | 지방 |
| 전체 | 실적 | 76.1 | 85.7 | 80.8 | 59.6 | 81.8 | 67.4 |
| | 전망 | 87.0 | 92.3 | 92.3 | 74.6 | 94.6 | 75.6 |
| 토목 | 실적 | 71.9 | 71.4 | 76.0 | 67.8 | 70.3 | 74.5 |
| | 전망 | 86.8 | 92.9 | 92.0 | 73.7 | 89.6 | 82.6 |
| 주택 | 실적 | 58.4 | 71.4 | 65.4 | 35.3 | 63.2 | 51.9 |
| | 전망 | 66.9 | 85.7 | 64.0 | 48.1 | 76.1 | 52.8 |
| 비주택 | 실적 | 62.5 | 71.4 | 73.1 | 40.0 | 70.1 | 51.0 |
| | 전망 | 71.0 | 78.6 | 80.0 | 51.9 | 76.8 | 62.3 |

주 : 실적은 2010년 3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4월 예측지수임.

- 서울업체 물량 지수는 전월대비 3.5p 감소한 81.8을 기록했으며 지방업체는 전월보다 1.6p 증가한 67.4를 기록함. 비록 지방업체의 지수가 소폭 개선되긴 했으나 지수가 60선에 불과해 지방업체의 경기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임.
- 서울업체의 경우 주택물량이 통계적인 반등으로 전월보다 1.9p 증가했으나 여전히 공중별로는 가장 낮은 수치인 63.2를 기록함. 토목(70.3)과 비주택(70.1)물량은 각각 전월보다 8.6p, 6.0p씩 하락함.
- 지방업체의 경우 주택(51.9)물량이 전월대비 소폭 하락(-3.1p)하였으나, 토목(74.5)과 비주택(51.0) 물량지수가 각각 0.6p, 6.3p씩 증가함.
- 2010년 4월 공사물량 전망지수는 3월 보다 10.9p 증가한 87.0으로 물량이 3월 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공중별로 토목 물량증가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큰 가운데, 여전히 주택물량에 대한 전망이 상대적으로 가장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토목 물량지수는 3월 실적치보다 14.9p 증가한 86.8로 재정사업으로 인한 상반기 공공 토목공사 물량에 대한 기대가 크게 반영됨.
- 주택과 비주택 물량지수는 3월 실적치보다 각각 8.5p씩 증가한 66.9과 70.1을 기록하였는데, 최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고 보금자리주택과 같은 공공물량의 확대에 인한 민간사업 위축으로 주택물량지수가 공중별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판단됨.

**인력/자재수급 상황 아직까지 양호한 가운데,
3월 들어 자재비 및 자금조달 상황 다소 악화**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 자재부문 수급이 아직 양호한 가운데, 자재비 및 자금조달 상황이 다소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력 및 자재수급 지수는 각각 107.6, 97.5를 기록하여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건비 및 자재비 지수는 각각 96.9, 82.6을 기록하여 최근 철강재 가격 상승세 등의 영향으로 자재비 상황이 다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공사대금수급 및 자금조달 지수는 각각 전월대비 3.1p, 3.0p 하락한 91.9, 85.3을 기록해 자금관련 어려운 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금·인력·자재 BSI >

| 구 분 | | | 종합 | 규 모 별 | | | 지 역 별 | |
|-----|--------|----|-------|-------|-------|------|-------|------|
| | | | | 대형 | 중견 | 중소 | 서울 | 지방 |
| 자금 | 공사대금수급 | 실적 | 91.9 | 100.0 | 100.0 | 73.3 | 99.2 | 81.1 |
| | | 전망 | 96.7 | 100.0 | 103.7 | 84.7 | 102.1 | 88.4 |
| | 자금조달 | 실적 | 85.3 | 100.0 | 81.5 | 72.4 | 91.5 | 75.8 |
| | | 전망 | 89.2 | 100.0 | 85.2 | 81.0 | 94.5 | 81.1 |
| 인력 | 수급 | 실적 | 107.6 | 114.3 | 114.8 | 91.7 | 114.8 | 96.9 |
| | | 전망 | 107.5 | 114.3 | 111.5 | 94.9 | 112.9 | 99.3 |
| | 인건비 | 실적 | 96.9 | 107.1 | 100.0 | 81.4 | 103.4 | 87.1 |
| | | 전망 | 93.2 | 92.9 | 100.0 | 85.7 | 94.1 | 91.8 |
| 자재 | 수급 | 실적 | 97.5 | 100.0 | 100.0 | 91.7 | 101.7 | 91.2 |
| | | 전망 | 96.4 | 100.0 | 92.6 | 96.6 | 99.6 | 91.7 |
| | 비용 | 실적 | 82.6 | 100.0 | 85.2 | 59.3 | 94.1 | 65.3 |
| | | 전망 | 74.6 | 85.7 | 74.1 | 62.1 | 77.6 | 70.0 |

주 : 실적은 2010년 3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4월 예측지수임.

끝.